

언론고충처리인 첫 워크숍 개최

서울지역 언론사의 고충처리인 대상, 효과적인 고충처리를 위한 워크숍 개최



● 언론중재위원회(위원장 권성)는 3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지역 언론사의 고충처리인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. 이날 행사에는 서울 소재 방송사, 신문사 고충처리인 23명과 문화체육관광부 언론고충처리인 담당자가 참석했다.

● 워크숍의 제1세션에서는 문용갑 한국갈등관리조정연구소 소장이 ‘분쟁의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기법’을 주제로 분쟁조정 자로서의 설득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심리학적 측면에서 살펴보고, 제2세션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양재규 기획팀장이 범죄사건 보도 및 DB를 이용한 재보도 등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사례의 법적 쟁점을 논의했다. 이어 제3세션의 종합 토론에서는 류춘렬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의 발제 및 사회로 ‘고충처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발전방안’에 대해 참석자들의 진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.

● 권성 위원장은 “법률적인 분쟁해결에 앞서 언론의 자율적인 분쟁예방과 피해구제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고충처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
● 위원회는 효과적인 고충처리를 위해,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조정·중재기법과 피해구제 방법에 관한 워크숍을 전국 언론사의 고충처리인을 대상으로 계속 개최할 예정이다.



언론중재위원회 모바일웹 구축(m.pac.or.kr)



위원회는 3월 초 모바일웹을 구축하고 위원회 동정, 보도자료, 간행물 발간 등의 정보를 모바일에서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
■ 접속방법

1. 휴대폰의 인터넷 창에 주소(m.pac.or.kr)를 입력하세요.
2. 모바일 인터넷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검색하세요.
3. 위원회의 각종 간행물에 오른쪽과 같이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인식시켜주세요.

